



### 조선인민군 소장 김 단 선생

김 단 선생은 1912년 4월 29일에 원동변강의 수도 하바롭스크 시 주변에서 멘논의 가정에서 탄생하시었다. 그후 1918년에 김 단 선생의 부모들은 하바롭스크에서 떠나 우부리스크시로 옮겨갔다가 이르시니 당시 한인들은 소왕령이라 불렀던바 그 당시 한인들이 많이 살고있는 도시였다. 김 단 선생은 이 소왕령에서 소학도, 초급도 이상 하였으나 부모님들의 경제난으로 학의타라 임시 육참생활을 중지하고 1928년 부터 1930년 까지 2년 동안 부모님들과 같이 "신두히케스" 협동조합에서 일하시었다.

"신두히네스" 협동조합은 두슈리스크 시 에세얼지앙게 2.  
 터러러 있는 원 품변간 한가이구택에 외재하여 있었다.  
 2년간 동안에 몇년간 동안 돈을 김단선생은 1930년  
 에 두슈리시에 가서 한인사범전문학교에 입학하였다. 김단  
 선생은 사전에서 공부할시 다른 학생들에게 비하여 벌써 성  
 년으로서 공부를 우수하게 하였으며, 특히 사회사업에서 능  
 령으로 보임하여 조직하는 사업에 항상 앞장서서 나가곤 하  
 였다. 이것을, 원출판에 있어서 협동조합일이 좀 때늦어지면  
 항상 고등학생들과 사전학생들을 파동, 레노 사업과, 가운데서  
 감과 파기에 동행하였던바 이원사업에서 김단선생과 같은 성  
 년 학생들의 활로라 했던 것이다.  
 김단선생은 1933년에 사권을 무수한 성적으로 마감하고  
 자기 복모들이 생긴 것은 "신두히네스" 협동조합 소풍추출  
 선생으로 파견 되어 1936년까지 일하시었다.



사진은 1946년에 김단선생이 경희부 흥덕판으로 제정시 권은것이다.

1936년에 김단 선생은 우쓰리 교육부의 파견을 받아 3  
원동에 유일하게 존재한 한인 사대에 공부하러 가게  
되었는데, 당시 이 사대는 블라지워스도크시에(당시-  
한인들은 해삼이라고 칭하였음) 있었다. 김단 선생은  
사범대학에서 일년간 공부하고 1937년 한인들의 강제  
이주와 관련하여 카자흐 공화국 크를올다시에 보내되었다.  
김단 선생은 사대 3학년을 앞두고 가정의 경제관계로  
인하여 학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1939년에 우즈베크  
공화국에 이주하여 타슈켄트주 교육부의 파견을 받아 중  
철칙 구역 카라쑈 초등학교에서 일년간 일하시다가 역시  
중 철칙 구역 등대" 협동조합 위원장의 초원을 받아  
동 조합 문화부장 겸 구락부주임으로 1940년부터 1945년  
까지 일하시었다.

김단 선생은 1945년 8월에 초병되어 원동변강  
소련군 제 1 전선에 도착하여 제 25 군단과 함께  
조선 해방전에 군사 총역원으로 참가하면서 북한에  
들어 가게 되었다. 북한 당에 들어서자 김단 선생은  
소련군 25 군단 정치부의 파견에 따라 북한 함경  
북도 응기시 민전사령관의 책임 총역관으로 일년간  
일하시고 1946년 6월부터 군단 정치부 제 7부총  
역관으로 1948년 말까지, 즉 소련군을 북한에서  
철퇴시킬 때까지 일하시었다.



사진은 김단 소장이 총참모부 특수군부대 정치부장  
으로 계시시에 관하 연합부대들이 현지전투 훈련에 참가하시고  
있는 관경. 앞줄 좌측 첫번째로선 김단 소장은 제1교사단  
사단장 태윤근 대좌의 환경 설명을 듣고 계심을 촬영한것이다.

소련군이 1948년 12월에 북한에서 철퇴하자 김단 선생은  
소련군적에서 제명되어 조선인민군적에 넘어가게 되었으며, 국  
적도, 공산당적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제  
적 되었다. 그후 김단 선생은 북한 정부 내각의 지시에 따라 타  
김책 부주상의 비서직에 취임 하시었다. 비서부는 보통보기에  
는 높지 않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김책 부주상이 리행하는 책  
임적 범위로 보아서 아주 광범하였으리라 짐대한 책임직 맡어  
였다. 김책 부주상은 고은 상식을 소유한 유식한 간부는 아니었  
으나, 개성이 선명하고, 정직하고, 간사나 교활성이 전혀없는  
진실한 간부였기 때 문에 인민은 김일성보다, 김책 부주상을  
더 신뢰하였다. 김책 부주상은 주로 산업을 지도하였으나, 그  
러나 군무자 회의에서나 농업 경영 중요한 회의에서 그의 결론  
은 실생활은 좋은 지침으로 우려나오는 말이며서 인민은 군

게 믿었다. 과거 출신으로 보아 김책 부부상은 소련군 88 여단  
 에 계실 때에 김일성 보다 높은 직위에서 사임하시었고, 또  
 동북에서 항일 빨간지산 운동으로 하실 때에 김일성은 전대나  
 사단법위에서 활약하였으나, 김책 부부상은 집단군 정치위  
 원으로 김일성위의 지도적 위치에 계시었다. 해방후 조선에  
 나와 사임하시던 우정장군, 김응장군, 최상조장군, 리익선  
 장군, 박일우 장군, 장평산, 방호산 장군들로 전복다 김일  
 성의 본류에 의하여 어떻게든 목숨을 애기웠으나, 그분  
 들은 전복다 전철한 장군들이었으나 김일성 보다 두세 단  
 3계 단 위에서 지도하던 간부들이었다. 때론 1950년  
 에 동족상잔이 시작되자 김일성씨는 백동, 만포부근, 만주  
 국 경역에 들어 앉아 있었지만 직접전선을 지도한 분들은  
 이상에 현저한 분들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김일성은  
 모든 전선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서 하나, 하나씩 철적  
 감직하기 시작하였다. 아직 확증된 증거는 없지만, 전  
 앞을 주로 없지만 여러 신임할만한 고급간부들의 여론  
 에 의하면, 김책 부부상이 1950년 12월 31일 날 밤에  
 항에서 조문시다가 제철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나 그것이다 김일성이 조직한 암살이며, 허가이  
 「자살」과 유사한 현노문이라고 하였다. 김단 선생은 비  
 서였으나, 그가 설날밤에 하하여 동북들과 밤늦게 놓고  
 아침에 자는 때 홍천포에서 흥고하기를 김책 부부상이  
 사망하였리하기에 그 숙소에 가보니, 그 장소에는 연개  
 시고 중앙 권이소에 양치향건을 볼 분이었다고 하였다.

김책 부수상이 사망한후 김단 선생은 약 일개월  
 간 휴직으로 계시다가 1951년 2월 중순부터 105 근위  
 탄포 사단 정치부장으로서 임명되었다 원래 105 근위  
 사단 정치부장은 소련 출신 안동우 공화국 영웅 근위 대위  
 였으나 안동우 대위는 1950년 7월중순에 무원시 쟁취  
 를 위한전투에서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사하였으므로 그  
 에게 근위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하였던 것이다. 105 호  
 근위 탄포 사단은 유경우 소장의 지휘하에 영웅적  
 으로 서울로 갱취하고 수원, 평택, 천안, 대전 까지  
 정령한후 랑동강 계천까지 나갔다가 추풍령개전투  
 에서 제 10 탄포 사단과 같이 기쁜 주력을 다 잃고  
 하는수없이 신의주까지 후퇴하다가 전군에서 영  
 영 퇴하고 다시 남은 기술기재들을 수습하는 한편  
 소련으로 복귀 기술기재들의 보충을 받아 또 다시 꾸려  
 놓은 전향부대였다. 김단 선생은 105 호 사단에서 1952  
 년까지 정치부장으로 계신후 동년 2월말달에 원민군  
 후방총국 기술기재 계획부 부장으로 1954년 5월까  
 지 일하시고, 1954년 6월 부터 1956년 6월까  
 지 원민군 농참부 특수 정치부 즉 농참로부에 직속한  
 능수 부대, 구분대들을 지도하는 정치부장으로 계시다가  
 1956년 10월부터 1958년 9월까지 조선원  
 민군 제 4 군단 군사위원으로 계셨다 사군단이  
 위치하고 있는지선은 수도를 방위할 목적으로 증대하고 6

인정할수 없으나 사실 그런 위험성은 당시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김일성의 상상에서 나온 존재로 하지 않는 "위험성" 이었다.  
 4군단은 그 배치지역이 평양 서쪽방향으로 동해바다까지, 또  
 남으로는 대동강, 북으로는 청천강이라고는 하였으나 사실은 남포시,  
 강서 제강소, 용강, 문천, 용림 황철 등이 풍대한 지리 경계격으로써  
 라고 인정할수없다 그런데 그 당시 "위험성" 이란것을 김일성  
 이가 기다린것은 외부의 그것보다 타마 내부의 그것을 더 두려  
 워 한것은 사실이였다 국내파를 박금철이와 리호준은 선두로하  
 여 침산 할시, 박금철이는 남한 정부와 내용하여가지고 남한군대  
 를 동원하여 삼활선을 넘어 북벌할 계획이였다고 적을 세워 침산  
 하지 안았는가? 4군단 역시 역시 비열하게 허무맹랑하  
 게 적을 조작하여 내외 그간부들을 전복다 청산하였던것이다 그  
 "적"란것은: 그당시 군단장에 장평산, 군사위원에 최학일이있  
 었던바, 당 중앙위원회 지도원들이 현지-강서 제철, 용강기계  
 공장, 황철 제강, 각 군소재등에 자위대들을 조직하여 놓고  
 전복다 만약의 시기면 일제히 동원하여 쌍분에서 공격하여  
 푸도 무기를 들고 수도 평양으로 들어오는 적들을 소탕할것이라고  
 지도한바 있음에, 얼마 지나간후, 이것을 도록 돌려, 너의 자위대  
 들은 4군단 반당종파분자들의 지도하에 푸도 평양을 전  
 복하라는 반당, 반정부 군사적 반란계획이라고 추측기 완을  
 백색 확산으로 돌려 놓고 중국에서 나오신 유령반군부들을 전  
 복다 사정없이 청산해냈다. 무령장군은 벌써 1950년 12월  
 기에 처단당하였지만, 이시기에는 야국유식한, 학문에서로, 또  
 군사적 면에서로 김우, 장평산, 리익선, 박송화 리림 선생

전북다 봉당 평산될 활경을 전후하여 나군단 군사<sup>8</sup>  
위원 최학일 (박정어 오빠) 을 대신하여, 군사위원  
으로 김단 선생은 임명받아 1956년 시월에 취임  
되었다. 높은 직위에 들어서기는 하였으나, 군단이 중앙  
으로 부히 평가받기를 반당종파분자들의 집단으로 평가  
된 군원함부대로써 여기있어 허바닥 밑항까지 처하  
된 사기를 다시 고취시키자면 어떤 제만한 힘을 가지  
고는 될지 알았다. 일은 아무것도 없는 허외적 실험을  
꾸려 지도자들로 칭찬하였으나, 하부근무자들은 그것을 알  
바없이 참자들이 종대한 죄를 범한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 누구든지 보는사람마다 자기들을 죄인으로 인정한  
다고 생각할 것만 사실이었다 그런데 김단이 임명 되어  
나군단에 간식기가 벌써 소련파는 대대적으로 칭찬되어  
가는 때였다. 김일성의 경책은 아무간교하여 쓰련파 다주  
높은 장군들로 몇몇명까지고서는 그대신 아래 몇몇은 높  
여 임시로 옮겨 두었다가 얼마간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높을 필요없는 도를 처럼 내치곤 하든것이다 어떻  
게 총정칙국 국장 최종학이 죽어 내려서 함흥에  
행사리 내려간다음 김단어와 김학원에게 소장 군사  
칭호를 수여 하여 각각 군단 군사위원으로 추켜 세웠  
다가 이사람은 저사람도 다 떼어버렸던 것이다.  
이렇게 김단은 나군단 군사위원으로 즉 당-정권  
대통령 박 일년 풀하게 되었다가 1958년 초에 철적

하여 소년사령부 총참모부 공중부장으로 강직시켜 내려보내  
 었기에 하는수없이 김단선생은 총참모부군관들의 여러  
 가지 식량공급부장으로 있게 되었다. 이렇게 당정권대론가  
 식량공급부장으로 떨어져 내려와 보니, 조선속담에불  
 기를맞는놈이 배가아파서 보라도 남의눈앞에서모욕  
 당하는것이 더고역하다고, 일은하라면 계속할수있으나  
 군사위원이공급부장의직무에 내려왔다고 눈총질하는것  
 과 회의나기합모임에서 계속적으로 소련파니, 허가의소리니,  
 소련나대풍파자, 판로풍파자니 하는것이 매번 귀결에  
 들리는때마다 속상까지 출혀내는듯하여 전일휴가없  
 으면서, 또 어떻게 내려다 앉어놓은것이, 더직무에 계속  
 두려는것이 아니라, 이것이 소련파 청산의 풍파의정박  
 노라는것이 다른동지들의 예를보아서도 확연하진않았지만  
 다. 김단 선생은 어찌에 흔들리흔을 써서 소련에귀  
 국수속을 하여야 된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김단 선생  
 은 본래 참새처럼 영리한 인간으로서, 만약 이런생각  
 을 먹은 있다면것을 조동당 당장들이 눈치만 채리게  
 된다면, 가지도 오지도 못하고 북한 지옥의 귀신이되  
 고 말것이라하는것을 꼭히 알고, 아주 깊은 비밀에서,  
 아무런 다짐한 친구들라도 말하지 않고 품착하였다. 이  
 때에 김단 선생에게는 아주 불행한 일이 닥쳐오고  
 있었으나- 그러나 이것이 김단선생이 북한에서 빠져서  
 나오는데는 큰 도움이 되었다. 그것은, 1958년 말부터

김단 선생과 근 26년간 같이, 아주 다정하게 생활하여<sup>10</sup>,  
아들 3형제를 낳아 양육 교양하여 삼남의 길에 내세운  
그의 부인 영옥이 위암으로 언저야 증후에게서게 되었  
다. 김단 선생은 이것을 원인으로 내일면서 1959년 9  
월부터 당에 송원을 제출하리 부인의 병치료를 위하여  
침착히 살고있는 소련에 귀국허가를 요청하였다. 그  
당장은 김단 선생을 소련에 추방하도 불려온, 배척고 니  
뺄 달기 보다 훨씬 일어난, 여사씨 부엌이나 농 땅 들을  
하고, 거러지 모양으로 돌려보내자 면, 어떤 죄 고리가  
있어야 되었면바, 이것을 오래동안 찾다가 1959년  
9월 29일에 로동당이 승인한다. 소련 대사관에서 수속  
을 기다리는 사이에 친척을 불러들여야 증후에게 넘어선  
음하런 영옥 사모님을 자기 아이들로 보지 못하고 김단  
선생의 외로운 심세를 보면서 눈물감았다. 어찌어  
번씩 북한에서 끌어발학권은 설득한 관계로 김단 선  
생의 큰 아이들은 허는 수 없어 소련 하바롭스크 시에  
와 함흥사리를 하려서 공부하였다. 이렇게 김단 선생  
은 1959년 10월 29일에 북한을 왔고 1960년 정월  
10일에 평양을 출발하여 함북 청진 특급을 흥남에서 소  
련 땅에 들어가 하바롭스크에 정월 15일에 도착  
하여 자기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다. 김단 선생은 조  
선 현실에 아주 직당하게 상식있게 준비된 간담했다  
북한에 가실 때에는 조선을 일러하시 해방되고 영  
원하게 조국땅에서 살려고 마음 먹었지만 전체

조선출신 간부들이 겪은 그러한 비체리런 죽음을<sup>11</sup>  
씨위 놓고 당 회의들에서 비판받을 때에야 자기로  
먼저 철칙, 강직 당한 조선출신 간부들의 취지를 알  
게 되었으며, 자리가 김일성 당장이 혁명을 막간  
간 당하에 가며 작은 김일, 천어반, 천을, 김철의  
장영봉 등 간부들에 대하여 죄명으로 되지도 않는  
"죄"를 찾아내려고 되지도 않는 말을 뒤쫓리 하여  
이리-저리 둘러북치던 일이 아주 조인수형제 생각되  
었다. 그러나 김단어는 철학론이나 유성철어처럼  
중국 정통운동에서의 한세어변 혁명을 하지 않았다.  
북한에서 일하시다가 추방되어 되돌아온 조선과간  
부들이 다유켄촌에 제일 많이 살고 있는고로 김단성생  
은 조선 귀환 초기에는 다유켄촌에 도록오려고 생각  
하지 않고 워평양로 허바롬쓰크 시에서 살려고하  
였으나 그 선생의 생활 양식, 행동양식이 전  
혀 러시아 언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관계로 김단  
선생은 허바롬쓰크에서 약 일년간 지내신 다음  
에 허바롬쓰크 난방시설공장 공급부장 직장에서  
나와 다유켄촌시로 이주하여 오게되었다. 다유  
켄촌에도 착하자 외국 장기간 출장간부로써 모든생  
조건을 보장받은 다음 1961년복 - 1965년까지  
서내 핵시 사업소에서 핵시운영 사업 기술공정  
기사로 일하시었다. 자동차 기술 부문에서 생전 //

일하여 본 경험 없이 젊은 김선생은 핵시사업소에서 오래  
 동안 일하시지 못하고 1964년 초에 "레닌기치" 신문사  
 신문기자로 취직하시며 1970년까지 일하시고 다음  
 년급 생활로 넘어가시었다 김단 선생은 하바롭스크에  
 서 하유켄으로 이사하여 도시와 모든 생활 문제가 국  
 가로 부터 잘 해결되자 1961년에 하유켄 시내에  
 서 살고 계시며 아주 암치공고 연좌한 년자에게 장  
 가를 가게 되었던바 그 녀의 성명은 박 웨라 라고  
 불렀다. 이 박 웨라 양은 북방에 가서 전기공업성황  
 으로 계시던 김영삼씨 부인 - 박은희의 터등생 되는  
 분이다. 김단 선생은 년급 생활에 넘어가신 후 4년  
 이 지나자 심장 아비병으로 1974년 7월 23  
 일에 하유켄에서 별세하시었다. 지금 현재 박  
 웨라 사모님은 김단 선생의 아들 3형제, 자기  
 딸 한명, 네명의 자손들에 대하여 걱정이  
 없으리, 조선의 흥일을 기다리고 계신다.